

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 소개

□ 최신 세계헌법판례

미국 연방대법원은 <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> 사건에서, 인구 중 흑인의 비율이 약 2/7임에도 7개 선거구 중 1개만 ‘흑인이 과반수인 선거구(majority-black district)’에 해당하도록 획정된 앨러배머 주의 선거구 지도가 인종과 관련하여 투표권을 제한하는 절차의 시행 등을 금지하는 투표권법 조항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미국 연방대법원은 <대중에 상품·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: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> 사건에서,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상품·서비스 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상고인들에게 동성 결혼을 위한 맞춤형 웹사이트를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프랑스 헌법재판소는 <‘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’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> 사건에서, ‘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2021년 8월 24일 법률’ 중 내무부 장관이 해산절차의 대상이 되는 결사 등의 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,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표명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증 등 발급·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률의 접근가능성과 명확함에 반한다고 하였으나, 공적 보조금을 신청하는 결사 등에 공화주의 서약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결사의 구성과 활동 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.

프랑스 헌법재판소는 <‘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’에 대한 사전적 위

헌법률심판> 사건에서, 주택의 불법점거자로부터 소유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‘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2023년 7월 27일 법률’의 일부 조항들을 각각 위헌, 조건부 합헌,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그 중 불법점거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유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1789년 인권선언 제4조에 근거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.

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<대체 양육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일반민법전 조항들의 위헌성> 결정에서, 심판대상이 된 일반민법전의 조항들이 부모를 대체할 양육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방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<사회부조급부에 관한 위헌법률 및 위법명령심사> 사건에서, 사회부조급부의 일부를 예외 없이 현물로 급부하도록 하는 사회부조원칙법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또한, 사회부조원칙법에 규정된 상한을 넘는 사회부조급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빈(Wien) 주의 최소보장법 및 관련 명령의 조항들을 각각 위헌·위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
□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

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.

□ 국외통신원 소식

일본 통신원의 <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>에서는, 구(舊) 우생보호법에 따라 실시된 불임수술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.